

'일관성 無' 도교육청 학폭 정책 도마

윤영숙 도의원, 교육·학에 질의... "관계개선 조정지원단 제도 운영·예산 집행 전반 점검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학에 관한 질문을 통해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의 일관성 없는 제도 운영과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위탁사업의 불분명한 예산 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먼저 관계개선 조정 지원단(이하 지원단) 운영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을 징계 중심이 아닌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5명에서 2027년까지 12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모집인원, 자격, 임기, 선정기준 등이 해마다 변경되고, 공고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활동하는 등 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단 관리체계 부실 문제로 꼬집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원단 명단을 이름 정도만 관리하고 있어 경력이나 자격 사항이 포함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모집 과정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자료를 확보하고도 지원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관리·감독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단 활동 실적과 수당 지급 문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학에 관한 질문을 통해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의 일관성 없는 제도 운영과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위탁사업의 불분명한 예산 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9~2025년 지원단의 평균 조정 건수는 전체 학교폭력 약 4% 수준(82건)에 그친 반면, 약 12억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원단원은 연간 몇 천만원의 수당을 받은 반면, 다른 지원단원은 몇 만원 수준에 그치는 등 수당 편차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사안 배정 기준과 수당 지급 방식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를 위한 위탁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도 지적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민간기관 위탁사업 4억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3억원 등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업의 계획서를 비교한 결과 제목과 내용, 일정, 감사진까지 유사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둘로 쪼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계획서에는 교장·교감, 교사,

지원단 등이 두 사업의 대상자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의의가 심의·의결한 사업 구조와 다르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예산 집행 계획에서도 감사료가 두 사업에 중복 계상된 정황이 확인됐다. 공공기관 위탁 사업에는 시설 대여료가 포함된 반면 민간기관 위탁 사업에는 대관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교육 장소는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감사진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구조라면 굳이 사업을 분리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사업계획에 전북도교육청 소속 현직 교원이 보조강사로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윤 의원은 "민간위탁 예산이 내부 인력에 다시 지급되는 구조라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숙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학생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일관성 없는 운영과 불분명한 예산 편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쌓이면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교육청은 제기된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학교폭력 예방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상근 기자

지역 기반 혁신 창업기업 발굴

전북대, 창업중심대학 참여기업 23일까지 모집 예비창업자부터 업력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대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창업지원단이 지역 기반의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총괄하는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인·물적 인프라와 창업 전담 지원 역량을 활용해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과 사업화를 이끄는 핵심 창업 육성 플랫폼이다.

이번 모집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부터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초기 사업화 자금과 기업의 수요와 성장 단계에 맞는 창업 교육, 심화 멘토링, 투자 유치 연계,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도약을 돕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기업별 세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시장 생존율과 사업화 성공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학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성 식품,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첨단 분야의 연구 성과와 탄탄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연계하여, 창업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투자 연계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오는 3월 23일 오후 4시까지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 후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사업 협약 및 지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된다.

국영수 전북대 창업지원단장은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창업 지원 플랫폼"이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준비된 학교도서관 위한 첫 시동 | 전주교육지원청, 12월까지 시스템·운영 컨설팅 추진

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학교도서관 시스템 및 운영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전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총 149개 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컨설팅은 업무와 시기에 따라 구분해 현장 맞춤형으로 운영되며, 특히 도서관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우선 지원해 현장의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학교도서관 운영 전반을 돕는 운영 컨설팅을 비롯해 장서 점검과 폐기 기준 안내, 재배열 지원 등 체계적인 장서 관리를 위한 장서관리 컨설팅, 도서부 학생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연수 등이다.

컨설팅 신청은 유레카 시스템을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전주교육지원청은 3월 신규 담당자가 배치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 안내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학교도서관 시스템 및 운영 컨설팅을 12월까지 추진한다. 사진은 전주지역 어느 초등학교에 마련된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전주교육지원청 제공)

전북교육청, '유아나이스' 병행 운영 체계 변경

도내 유치원들의 정보공시 입력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유치원 정보공시 입력 방식에 '유아나이스'를 병행 운영하는 체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정보공시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공시 자료는 '유치원라이미'를 통해 제공된다. 올해 유치원 정보공시 입력은 12월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유치원 정보공시는 공시정보등록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돼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은 유아나이스와 공시정보등록시스템에 동일한 자료를 각각 입력해야 해 자료 중복 작성과 반복 확인 등 행정업무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번에 유아나이스 병행 체계가 도입되면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

치원은 유아나이스에서만 공시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이에 따라 중복 입력 부담이 줄어들고 업무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 관련 데이터가 유아나이스 중심으로 연계·관리되면서 자료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다만 유아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기존 공시정보등록시스템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안정성을 고려했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이번 병행 운영은 현장에서 제기된 이중 입력 부담을 줄이고 공시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 개선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을 통해 정보공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우석대, 전주캠퍼스 RISE 사업단장에 이미경 교수 임명

우석대학교가 전주캠퍼스 RISE 사업단장에 이미경 교수를 임명했다.

이미경 단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5년 우석대학교에 부임했다. 이후 기획처장과 학생취업처장, 도서관장, 약학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맡으며 대학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또한 혁신사업단장과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단장을 역임하며 대학의 특성화 분야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도 기여해 왔다.

이 단장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RISE사업을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역 혁신을 이끌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전주캠퍼스 RISE 사업단 부단장에 이승미 아동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오상근 기자



교실 속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

전북교육청, 지난달 도내 초·중·고교 총 23곳 선정 헌법교육·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등 중심으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헌법적 가치를 교육하고 수평적인 학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총 23개교를 선도학교로 선정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5개교다.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는 자기 주도

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공동체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운영 과정에서는 헌법교육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이수 등 필수 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미디어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다문화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 평

화통일교육, 지역역사 바로알기 등 선택 과제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전북교육청은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교과 간 연계 수업을 활성화하고 토의·토론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확대해 민주시민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삶의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라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연대하며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군산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학교 문화·예술 교육 사업 추진

군산교육지원청은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예술로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군산교육을 주제로 지역 연계 학교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체험처를 발굴하고 관내 공립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군산지역 초등학교 12개교에서 약 3,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 '학교자율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생 특성에 맞는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맞춤형 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6 건강장애·보호필요학생 담임(담당) 교사 연수'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청, 건강장애·보호필요학생 담임교사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6 건강장애·보호필요학생 담임(담당) 교사 연수'를 개최했다.

건강장애학생은 소아암과 백혈병 등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보호필요학생은 건강장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질병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의미한다.

현재 도내 건강장애 및 보호필요학생은 총 77명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스

쿨포유, 사단법인 하나회 꿈사랑학교 전북대학교병원 한누리병원학교 등을 통해 대면·원격수업과 실시간 화상 강의 방식으로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연수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꿈사랑학교, 전북대병원 한누리병원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해 교육과정 운영과 학적 관리, 수업 지원 체계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기자